완도빙그레시네마, 문화충전소 역할 톡톡

총 2개관 98석 규모로 연중 무휴로 운영

개관 5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3만3천명

완도군은 지난해 9월 26일 개관한 '완도빙그레시네마'의 누적 관람객이 32,3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에서는 1966년 개관하여 1981년 폐관한 '완도극장' 이후 36년 만인 지난해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문화예술의전당 문화동 2층을 리모델링한 작은영화관 '완도빙그레시네마'를 개관했다.

완도빙그레시네마에서는 전 연령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최신 개봉영화 4~5편을 매일 상영하고 있으며, 지난 5개월간 48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영화관은 총 2개관 98석 규모로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영화관 관계자는 "주말이면 하루 평균 200여명이 찾고, 설 연휴에는 1,600여명이 영화관을 다녀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28일 개통한 장보고대교 개통의 영향으로 완도 동부권역 주민인 고금, 약산, 금일, 생일 등 문화혜택에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영화 관람이 늘었다고 밝혔다.

완도 빙그레 시네마는 지난해 11월에는 작은 영화관 기획전을 열고 5일간 12편 총 30회 무료 상영을 실시하여,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 및 관내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빙그레시네마가 지역 주민들의 사랑 속에 대표 문화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며 "매월 마지막 수요일 1,000원 할인, 작은 영화관 기획전, 4만명 돌파 이벤트 등 각종 문화 이벤트를 접목하여 관람객 유치와 군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 빙그레 시네마는 '완도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실시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유관기관 등과 민관 합동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3일과 26일 무안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게이트키퍼란 OECD 가입국가 중 13년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마련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기관의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생명사랑 지킴이라고도 불린다.

이날 실시된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과정 중 하나인 "보고 듣고 말하기"는 감정적 고통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보기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빨리 알아차리고, 듣기를 통해 자살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감적으로 경청하며, 말하기를 통해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연계하는 자살예방의 전 과정을 포괄하도록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상담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무안군의 자살률 감소와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가성 기자

장흥 물축제, 6년 연속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축제 글로벌 부문 수상…"지속적인 콘텐츠 개발로 세계인 축제 만들 것"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6년 연속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을 수상했다.

장흥군은 지난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축제 글로벌 부문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한 '2018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에 주는 상이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름 축제로 특별상 글로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매년 7월 말에서 8월초에 탐진강과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와 지상 최대의 물싸움, 맨손물고기 잡기 등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면서 국내를 대표하는 여름축제로 발돋움 했다.

실제로 올해 물축제는 보여주는 축제에서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놀이축제로 확실히 체질을 바꿨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의 지역 축제 검색어 순위에서 각각 1위와 4위에 이름을 올리며 관광객들의 인기를 톡톡히 누렸다.

특히, 야간 EDM 풀파티와 더욱 강력해진 지상최대의 물싸움, 수중 줄다리기, 맨손 물고기 잡기 등의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은 관광객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탄탄한 프로그램 구성된 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에 3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되며 축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김성 군수는 "물축제는 물이 가진 생명의 에너지와 신나는 놀이, 즐거운 추억에 초점을 맞춘 참여자 중심의 축제"라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흥필 기자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정월대보름 맞은 여수, 민속놀이 '다양'

내달 1~2일 웅천 · 둔덕 · 삼일 · 소라 등서 개최

달집태우기 · 지신밟기 · 쥐불놀이 · 풍등날리기 등

정월대보름을 맞아 여수 곳곳에서 안녕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민속놀이 행사가 펼쳐진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월대보름 민속놀이가 예정된 곳은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웅천 해변문화공원, 둔덕 용수, 삼일 호명, 소라 가사리 등이다.

먼저 1일 오후에는 웅천 해변문화공원에서 여수문화원 주관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린다.

행사 참여자들은 강강술래, 좌수영북춤, 남도민요 등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솟대쵤영, 한지공예, 가훈쓰기 등 민속놀이도 경험할 수 있다.

둔덕동 용수마을에서도 이날 달집태우기를 포함해 지신밟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등이 진행된다. 민속문화단체 놀이패 벅수골은 '쥔쥔문여소'라는 마을굿 찾기 행사도 선보인다.

삼일동 호명민속보존회는 호명마을에서 달집태우기, 농악놀이, 두더지방아, 쥐불놀이 등 세시풍속을 재현한다.

2일에는 소라면 가사리 농업단지 들녘에서 쥐불놀이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소라면 가사리 마을청년회와 부녀회, 여수YMCA는 밀떡굽기, 활쏘기, 투호놀이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했다.

같은 날 문수동 고락산에서는 산신제, 묘도동에서는 대보름맞이 쥐불놀이 등이 열린다.

시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하면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이 떠오른다"며 "많은 시민들이 전통 민속놀이 행사에 참여해 소원을 빌고 화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진도군 "세금 고민 무료로 해결해드립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진도군이 지난해부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재능 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해주는 지역세무사를 말한다.

진도군은 지난해 주민들이 47건의 세무 상담을 실시했다. 문의는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540-3309).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진도군청 홈페이지와 민원실,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에서 마을 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전화·팩스·이메일 상담을 통해 1차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필요시에는 시간·장소를 정해 추가 상담도 가능하지만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신고 대행은 상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활성화를 통해 세무 상담이 어려웠던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이 자신들의 재산상 권익을 잘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